

취업주부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가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 주 희(성신여대 조교수)

최근 우리나라의 두드러진 인구학적 변화로 나타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현상은 여성취업이 결혼관계 및 부부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탐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기혼 취업여성들이 일과 가정 양립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가 그들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취업주부의 결혼 생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취업주부들로 의도적으로 표집되었다. 2009년 10월 1일에서 2009년 12월 30일까지 유의적 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서울시 및 경기도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의 클라이언트, 서울시 강북구와 성북구의 자영업자, 삼성어린이집의 취업모 등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330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실 기재 된 30부를 제외하고 30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총 52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부인의 연령, 남편의 연령, 부인의 학력, 남편의 학력, 주거지역, 근무제, 가족의 형태, 월 소득, 자녀의 연령, 부인의 직업에 관한 12개의 배경질문과 자녀의 주돌봄자, 양육의 책임자, 양육의 책임자에 대한 이유, 지역사회내의 적합한 보육시설의 유무 등 4개의 직장 및 자녀양육의 특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는 Gerson이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총 24개 문항의 의 총합점수에 의해서 측정 되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 (4-Likert Type Scale)로 구성되었다.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 모두 총합점수 12점에서 48점 범위이며,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만족도와 긴장도를 나타낸다. 역할 만족도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역할 긴장도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로 검증되었다. 결혼생활 만족도는 Bowden과 그의 동료들 (1981)이 개발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총 12개 문항의 총합점수에 의해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 (4-Likert Type Scale)로 구성되었다. 결혼만족도 총합점수 12점에서 48점 범위이다.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낸다. 결혼생활 만족도 척도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로 검증되었다. 자료는 SPSS WIN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α 계수, t검증, Pearson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주부들은 유사한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를 경험하였다. 둘째, 취업주부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역할만족도, 역할긴장도,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할긴장도가 낮을수록 역할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역할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역할긴장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역할만족도와 아내 연령만이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더욱 높은 수준의 역할 만족도는 더욱 높은 수준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취업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결과. 취업부부들이 유사한 수준의 역할만족도와 긴장도를 경험하는 것은 취업주부들이 일과 가족의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높은 만족감과 함께 또한 높은 긴장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역할 만족도가 높을수록 역할 긴장도가 높게 나타났고, 역할 긴장도가 높을 때 결혼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 결과는 취업부부들의 심리적 긴장감을 감소시키고 역할 만족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일-가족 양립을 돕는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취업부부들의 결혼생활의 경험은 더욱 풍요로워 질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더욱 높은 수준의 역할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은 더욱 높은 수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취업주부들의 결혼생활 만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연령이 젊은 층일수록 더욱 평등한 성역할 관계를 이루어 일-가족 양립을 더욱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서 결혼생활의 만족이 더욱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